

민선 7기 임기 말 ... 광주시 행정의 흔들린다

GGM·AI·어등산·민간공원·비엔날레 ... 주요 현안 사업마다 '빠격' 일관성 없는 행정에 정무라인도 마비상태 ... 조직 내부는 '복지부동'

임기 말을 맞은 민선 7기 광주시가 흔들리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공장, 인공지능(AI), 어등산 관광단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그리고 3년만에 열린 광주비엔날레까지 주요 현안 사업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업 대부분이 성과물로 꼽히는데도,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소송 등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조직 내부도 불안하다. 정기 인사철이 아닌데도 이례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담당과장이 스트레

스를 견디지 못해 근무 두 달여 만에 떠났고, 주요 현안업무를 맡는 부서에선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다"며 복지부동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무라인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대외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특별보좌관(3급)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가까이 공석이고, 시청 내 정무라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무라인 부재는 국비·국가사업 활동 차질 등을 낳고 있다.

정무적 성향이 강한 법무담당관은 지난 1월 임성 이후 과도한 업무 관여 등으로 되레 일을 꼬이게 하

고 있다는 내부 비판을 받고 있다. 시청 안팎에서 코로나19 등 각종 위기를 특유의 특색으로 이겨냈던 이용섭 시장의 '위기 극복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노사상생형 일자리로 탄생한 GGM 자동차 공장은 지난달 29일 술한 어려움을 딛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었지만, 때아닌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직원 채용 면접에서 노조가입 의사를 묻는 등 노동조합을 사실상 적대시 하는 질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반노동적 행태에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압박했다.

시민에게 명품공원을 선물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90%대(전국 평균 79%)의 공원부지를 확보하는 등 전국 최고의 성과를 냈지만,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되레 논란의 중심에 섰다. 관련 부서에서 2년여 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평당 1900만원, 후분양'을 결정했지만, 갑자기 사업자 내부 갈등 등을 이유로 원점 재검토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원점 재검토 전환 과정에서 사실상 정무적인 신입 광주시 법무담당관의 과도한 개인성 발언도 문제가 됐다. 지난 1월 시민단체의 반대성명을 받고 채용된 법무담당관(4급)은 지난달 중앙공원 1지구 사업조정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뒤 사업자(현양과 비현양)간 합의를 종용하고 "경고한다. 둘 중 하나는 죽는다. 합의하라"고 발언해 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법무담당관은 이 시장 동생의 변호를 맡아온 사실이 알려져 사전 내정설 등이 제기된 인물로, 이날 발언은 법적자문 역할을 넘어선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공지능(AI)사업도 최근 핵심인 'AI데이터센터'의 세계 10위권 실추 성능의 과대포장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이 시장은 급기야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SNS를 통해 "광주 밖에서는 모두 성공사례로 평가하고 부러워 하는데 정작 내부에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 밖에도 15년째 표류중인 어등산 관광단지는 개발업체와 수개월간 재협상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답보상태고, 코로나19 위기 속에 전 세계 문화·예술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3년만에 열린 광주비엔날레(4월 1일-5월 9일)는 전시기간 특정 간부의 부당해고와 인사권 남용, 갑질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내외적 망신을 사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6일 오후 광주 광산구 성덕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한 임시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전날부터 이들 동안 14명이 확진되는 등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고교생 14명 코로나 확진 '충격'

광주 광산구 성덕고서 집단 감염 유행업소 접촉원들 무더기 확진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광주 성덕고등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상무지구 유흥업소 접촉원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어버이날을 포함하면 이번 주말이 지역사회 대유행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시민들에게 철저한 개인방역 수칙 준수와 외출 자제 등을 호소하고 나섰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18명의 확진자(누적 2471명)가 추가됐다. 성덕고 관련 13명,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4명, 조사중 1명 등이다.

방역당국은 질병청 호남센터, 광주시, 감염병지원단, 보건소 관계자 등으로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성덕고를 현장조사하고, 학교 인근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한 학부모가 지난 1일부터 증상을 보인 뒤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미뤄 이 확진자의 자녀를 지표환자로 분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최초 감염원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고민이다. 일부 확진 학생과 동선 등이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지표환자를 포함한 확진 학생 14명은 1학년 6개 학급에서, 많게는 학급당 4명까지 나왔고 3학년 학생도 1명 포함됐다. 교사는 확진되지 않았다. 조사에서 확진 학생들이 무리 지어 다녔거나 특별한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역학 조사와 함께 확진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추가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고교생의 특성상 확진자들의 활동량이 많고 동선이 워낙 다양한데다, 가족 등 밀접 접촉자들의 직업군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앞선데 뒤틀린적으로 상무지구 유흥업소 접촉원 발 코로나19 감염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접촉원 4명이 특정업소에서 종사하지 않고, 전화연락 등을 통해 여러 업소를 옮겨 다니며 일하는 일명 '보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지난 5일 상무지구 유흥업소의 한 접촉원은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이날 함께 일하는 접촉원 4명이 추가 확진됐다.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5명이다. 동료 접촉원, 업소 종사자 등 접촉자 11명은 자가 격리됐다.

확진 접촉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상무지구 여러 유흥업소에서接客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CCTV, GPS 등을 확인해 추가 접촉자를 찾아내고 재난 문자를 보내 최근 상무지구 유흥업소 이용자에 대해서는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유흥업소 특성상 이용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상무지구 유흥업소 등을 방문했는데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 등에 대해선 방역 수칙 위반 여부 등을 따져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호남에서부터 '변화와 쇄신' 경쟁 여야 새 지도부 오늘 광주·전남 온다

여야 신임 지도부가 7일 광주·전남을 찾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호남에서부터 '변화와 쇄신'의 경쟁에 나서고 있는 흐름이다.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을 다지면서 정권재창출의 길을 열겠다는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치적 불모지인 호남에서 '혁신 보수'의 의지를 보이며 정권 탈환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이날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는다. 신임 지도부 구성 이후,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다. 여기에는 민주당을 향한 호남 민심의 비판적 흐름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호남 민심의 저변에는 민주당의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에 대한 견제의 미도 있다. 실제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호남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야권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만만치 않게 나오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을 면담한다. 또 한전 본사

를 찾아 한전 공대 개교 진행 현황 등을 듣는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당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서구갑)이 중앙당 전라기획위원장에 내정, 지역 민심의 장구 역할을 물론 차기 대선에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도 같은 날 광주를 방문한다. 김 원내대표 방문에는 정양석 사무총장과 정은선 국민통합위원장, 광주·전남동행 국회의원 등이 함께 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광주형일자리현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5·18단체 관계자를 비공개로 만난 뒤 오후에 무안 남악 전남도당 개소식에 참석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초선의원들도 오는 10일 광주를 찾는다. 이는 김중민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추진했던 서진전략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쇄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호남 민심이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혁신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선정 논란 커진다 ▶5면

복스-‘이순신아...’ ‘별고를 안다는 것’ ▶14·15면



양현중, 33살에 MLB 선발 꿈 이뤘다 ▶18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노먼 소프 기자 '5·18 사진 200여점 공개' ▶기사 7면·화보 10면

촉촉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 설화수 플레그스피어 워 워터 팩티션, 아모레 카운셀링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레그스피어 : 02-541-9270 • 고객센터 :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